

재미있는 세계의 물품화폐



한국은행

재미있는 세계의 물품화폐

2005. 7

발권국 발권정책팀

차 례

2	타지키스탄의 중국 실크
4	슬로바키아의 도끼
6	동남아시아의 은괴
8	니카라과의 코코아 열매
10	몽골의 벽돌형 차
12	수단의 구형(球型) 양과
14	이디오피아의 소금괴(amoli)
16	크로아티아의 담비 모피



18	온두라스의 구리 방울
20	탄자니아의 밀레피오리(millefiori) 구슬
22	아프카니스탄의 청금석(靑金石, lapis lazuli)
24	마다가스카르의 홍옥수(紅玉髓, carnelian beads)
26	오만의 총탄
28	말레이 반도의 주석괴와 압섬의 돌원반
29	파푸아뉴기니의 진주조가비
30	앙골라의 옷감조각과 솔로몬 군도의 깃털
31	우리나라의 물품화폐



고대 물물교환 시대에는 물물교환에 적합한 물품이 화폐로 사용되었다. 초기에는 곡물, 가죽 등 생활필수품이 물품화폐로 사용되었으나, 이들 생필품들은 쉽게 상하는 데다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아 시기에 따라 가치가 크게 변동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환 가치가 일정한 화폐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보관과 운반이 용이하며 견고성이 뛰어나고 희소성까지 갖춘 동물의 뼈로 만든 소품, 조개, 농기구, 장신구 등의 귀금속이 물품화폐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

* 이 자료는 한국은행 화폐금융박물관 및 독일 Giesecke & Devrient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

타지키스탄의 중국 실크

옛날 아시아에서 생산된 실크는 타지키스탄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실크로드를 통해 유럽으로 수출되었다.

실크의 가치는 금과 같아서 실크 1Kg과 금 1Kg을 교환할 수 있었는데, 당시 중앙아시아에서 명마 1필은 실크 40필과 교환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크는 중국에서 대표적인 교환수단으로 사용되었고, 타지키스탄, 몽골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품의 대가를 지불하는 데도 사용되었다.

몽골에서는 13세기에 실크가 지폐로 대체되었는데, 당시 지폐용지 원료로는 뽕나무 껍질의 섬유질을 사용하였다. 실크의 원료를 만들어 내는 누에가 뽕나무 잎을 먹고 산다는 점에서 묘한 아이러니다.



슬로바키아의 도끼

11세기 유럽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화폐가 유통되고 있었는데 슬로바키아에서는 “위대한 모라비아의 도끼”로 알려진 강철자루가 화폐로 사용되었다. 이 강철자루는 슬라브 세계에서 사용된 화폐중 가장 오래된 것인데, 슬로바키아에서는 중부유럽에서 사용된 최초의 철제 유물이 출토된 바도 있다.



동남아시아의 은괴

7~8세기경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의 주화가 들어와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11세기부터는 주화가 사라지고 은괴가 새로운 교환수단으로 자리잡았다.

당시 버마에서는 달팽이 껍데기 모양의 은괴, 꽃모양 은괴, 사자모양 청동 추 등이 화폐로 사용되었는데, 상인들은 왕명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은괴를 달아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달팽이 껍데기 모양 은괴〉



▲〈꽃모양 은괴〉



▲〈사자모양 청동 추〉



옛 태국에서 사용된 은괴는 세 종류인데, 지금의 라오스에서는 납작한 막대기, 북부 태국에서는 구부러진 고리, 남부 태국에서는 구형으로 구부린 은괴가 사용되었다. 통상 은괴에는 주조처의 도장이 찍혀져 있다.



▲〈납작한 막대기(라오스)〉



▲〈구부러진 고리(북부 태국)〉



▲〈구형으로 구부린 은괴(남부 태국)〉

1840~1930년경 중국에서 사용된 은괴는 이를 만든 은방에서 순도를 증명하는 도장을 찍기도 하였다.



▲〈순도를 증명하는 도장이 찍힌 중국 은괴〉

니카라과의 코코아 열매

니카라과 원주민들은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이 아닌 코코아 열매를 화폐로 사용하였다. 크리스토퍼 콜롬버스는 1502년 니카라과에 상륙할 당시 코코아 열매를 가득 실은 카누 한척을 포획하여 이를 화폐로 사용한 최초의 유럽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스페인 사람들도 코코아 열매를 화폐로 사용하였는데, 그 가치는 토끼 1마리가 코코아 열매 10개, 노예 1명은 코코아 열매 100개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복자 헤르난도 코르테스도 코코아 농장을 소유하였는데, 코코아 열매의 수확이 늘어남에 따라 재산이 속속 늘어나는 것에 만족해했다.

유럽에서는 코코아 열매로 만든 초콜렛의 인기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코코아 열매가 유럽으로 수출된 후 그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



몽골의 벽돌형 차

지난 수백년간 몽골이나 중국, 티벳사람들은 차를 음료로 마셔왔을 뿐 아니라 화폐로도 사용하였다. 기록을 보면 송나라때인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차로 세금을 납부한 경우도 있었다.

차를 화폐로 사용하려면 쉽게 운반하고 저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당시 사람들은 말린 차잎을 잘게 부수고 체로 친 후 증기로 압축하여 1~1.5킬로그램 무게의 벽돌 형태로 만들었다.

차를 이용해 물품을 교환하는 데는 일정한 원칙이 있었다. 즉, 4개의 벽돌형 차를 한 단위로 하여 말한 필은 20단위, 양 한 마리는 7단위, 칼 한 자루는 1단위 이하에서 거래된 기록이 전해진다. 벽돌형 차의 밑부분은 작게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뉘어져 있다.



수단의 공형(球型) 양파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국가인 수단에서는 570개의 인종들이 1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옛날 나일강 유역과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지역에서 사용하였던 화폐는 수단의 인종과 언어만큼 다양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수단의 서쪽지방인 다르푸르(Darfur)의 사막지대에서 출토된 화폐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둥근 공 모양의 양파이다. 이 공 모양의 양파 화폐는 직경이 2.5~4센티미터 정도이고 무게는 15그램 미만인데, 양파를 갈아 반죽을 만들고 이를 공 모양으로 만든 후 태양열로 건조하여 만들었다.

사막의 척박한 생활환경을 감안하면 양파 화폐는 물품화폐의 세 가지 중요한 요건인 ① 썩지 않고, ② 손쉽게 운반할 수 있으며, ③ 사람들이 화폐로 널리 인식하는 점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양파 화폐의 가치는 수수 1자루가 양파 화폐 5개 정도에 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디오피아의 소금괴(amoli)

고대 이래로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유럽의 문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나 화폐로는 수백년간 이디오피아 고유의 아몰리(amoli)를 사용하였다. 아몰리는 정제하지 않은 황회색 소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무게는 약 850그램, 크기는 21.6×6.4×5.1센티미터 정도로 표준화되어 있다. 아몰리는 부서지거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풀잎으로 만든 얇은 리본을 아몰리의 길이 방향으로 묶었다.

소금은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아몰리의 가격은 다나킬 사막의 소금 광산에서 멀수록 비쌌다. 아몰리의 가치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랐으나 대체로 아몰리 3개가 동물 1마리 분의 가죽이나 말 한 필과 같았다.

이디오피아에서는 19세기 초에 유럽에서 온 마리아 테레사 탈러(Maria Theresa thaler)라는 은화도 사용되었는데, 가장 액면이 큰 은화는 아몰리 50개 정도의 가치를 지녔으며 20세기 중반까지 사용되었다.



크로아티아의 담비 모피

유럽에 서식하는 담비는 모두 세 종류인데 그중 두 종류가 크로아티아에 서식하고 있다. 담비 모피는 아주 옛날부터 크로아티아는 물론 외국에서 화폐로 사용되었는데, 크로아티아 담비 모피는 러시아 점은 담비 모피와 같이 시장에서 고가로 거래되었다. 담비 모피가 고가로 거래된 것과 관련하여서는 1018년 크로아티아의 오소르시와 크레스시가 매년 담비 모피 40장을 베니스에 세금으로 내는 데 동의했다는 기록이 있다.

옛날 크로아티아의 상거래에서 담비 모피가 중심적인 화폐역할을 했던 흔적은 오늘날의 화폐단위 명칭인 쿠나(kuna)가 담비를 뜻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온두라스의 구리 방울

마야문명에서 철기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구리와 청동은 널리 사용되었는데, 단단한 금속형틀을 이용하여 주조한 작은 구리 방울이 화폐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구리 방울이 신과 조상에게 바치는 제물로서 활용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 온두라스의 코판사원(Copan temple)에서는 물 웅덩이를 구리 방울로 메운 유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 작은 구리 방울은 마야가 외부세계와 교역을 할 때에도 사용되었는데, 오늘날 미국 남서부에서 2,00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살았던 안사치(Anasazi)족이 마야의 구리 방울 및 앵무새 깃털과 자신들의 조개 껍데기 및 도자기 장신구를 교환했던 사실이 고고학 연구결과 밝혀진 바 있다. 1524년 마야제국이 멸망함에 따라 마야의 모든 전통적인 화폐는 은화로 대체되었다.



탄자니아의 밀레피오리(millefiori) 구슬

아프리카에서 쉽게 눈에 띄는 보석인 유리구슬은 오래 전에 탄자니아로 유입되었는데, 이 유리구슬은 유럽 제국 및 아라비아 상인들과의 교역에서 화폐로 사용되었다. 밀레피오리(millefiori) 구슬은 유리구슬의 일종으로 유럽에서 유입된 후 주로 노예나 상아를 거래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탈리아어로 1,000송이의 꽃을 의미하는 밀레피오리 구슬은 기원전 1,000년경 아라비아에서 처음 제작되었으며, 중세의 베네치아 유리세공업자들이 기법을 재발견한 바 있다.

밀레피오리 구슬은 작은 색유리 막대조각들을 함께 묶은 후 열로 녹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만들었으며, 제각각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져 고유의 개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

1885년 위투의 술탄 아메드(Sultan Ahmed)는 국토의 일부를 유럽인에게 팔면서 그 대가로 무기, 은화 탈러(thaler)와 아름다운 유리구슬을 받았다. 오늘날 밀레피오리는 보석으로서는 인기가 높지만 화폐로서의 지위는 상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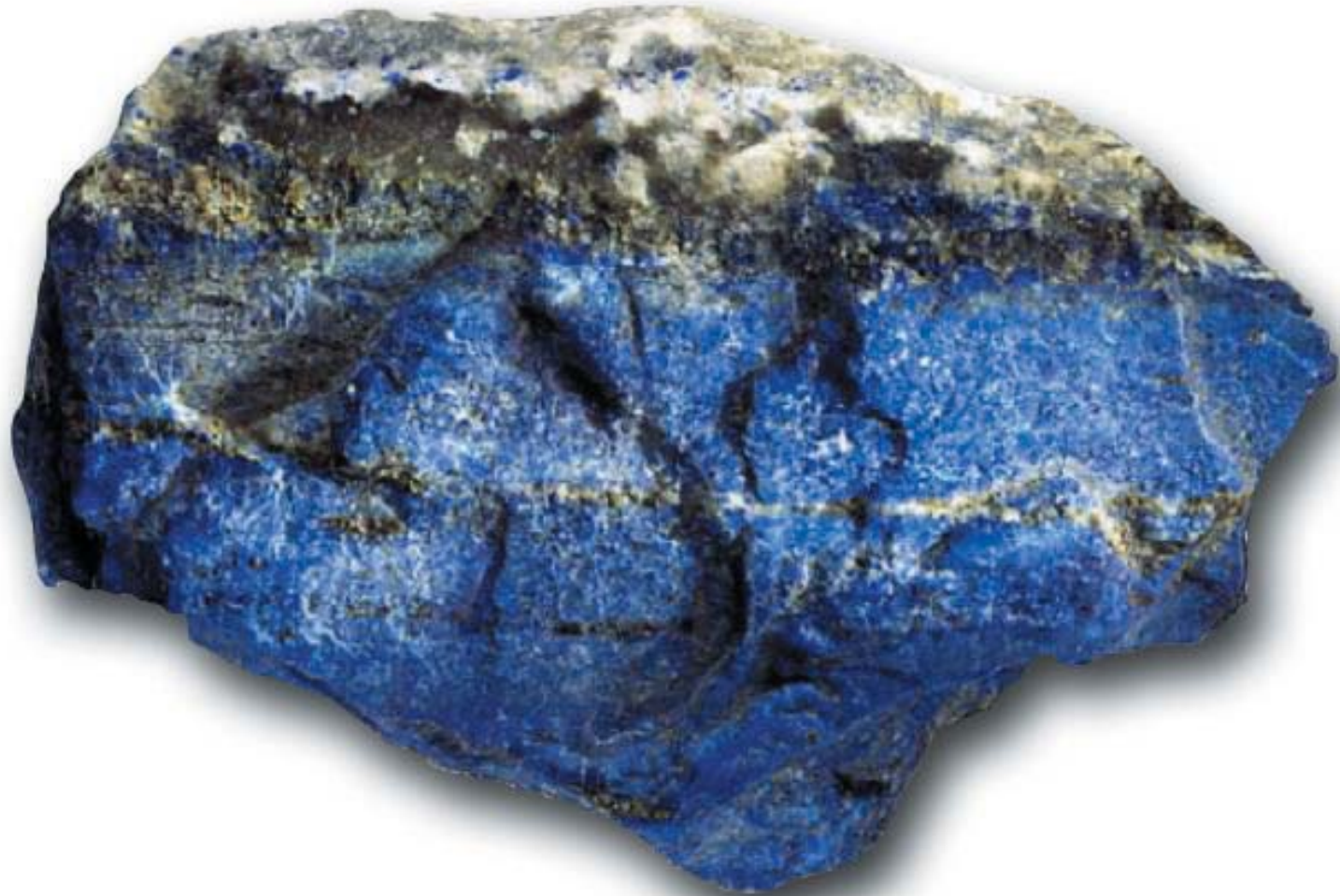


아프카니스탄의 청금석(靑金石, lapis lazuli)

오늘날의 아프카니스탄 바다크산 지방 산악지역에서 생산되는 청금석은 기원전 4,000년경 메소포타미아와 나일강 지역으로 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청금석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순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체스벳(chesbet)”이라고 불리는 청금석을 파라오만이 소유할 수 있었는데, 청금석은 색채가 항구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금과 동일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청금석과 금을 이용하여 만든 귀금속은 파라오의 황금마스크에 장식되어 파라오와 사후세계를 함께 하였다.

지난 5,000여년 동안 불멸의 돌인 청금석을 이용한 예술작품이 다수 제작되었으며, 이 중에는 유럽에서 제작된 것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원석 상태의 청금석으로 만든 안료인 감청색의 울트라마린(ultramarine)은 대단히 비싸 부유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Madonna of the Grotto”를 제작할 때 이 안료를 사용하였다. 청금석 안료는 아프카니스탄의 주된 수출품의 하나인데, 고급 청금석 안료의 가격은 1킬로그램에 약 1,900만원(€ 15,500)을 호가한다.



마다가스카르의 홍옥수 (紅玉髓, carnelian beads)

마다가스카르는 경관의 색깔이 매우 아름다운 섬으로 알려져 있다. 섬 북부지역 경관의 주된 색깔인 빨간색과 초록색은 이 나라의 국기에도 등장할 뿐 아니라 한때 마다가스카르에서 화폐로 사용되었던 귀금속도 이와 같은 색감을 띠고 있다. 화폐로 이용된 귀금속으로는 주황색이나 분홍색의 마노석, 진한 빨간색의 벽옥, 붉은 반점이 있는 초록색의 혈석 등이 있다. 여러 가지 홍옥수중 붉은 빛이 나는 것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데 원주민은 붉은 홍옥수를 “부자”의 의미인 “하랑구아(harangua)”라고 부른다.

유럽에는 7세기경에 아랍상인이 광택을 낸 홍옥수를 처음 인도에서 들여온 것으로 추측되는데, 당시 유럽사람들은 금보다 홍옥수를 더 좋아해 영국에서는 홍옥수가 인도에 비해 수십배 비싸게 거래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오만의 총탄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의 침략대상이었던 오만에서는 외세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경우에만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오만에서는 무기를 가진 집단만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형 총탄이 한때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물이자 지불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오만의 상인들은 동아프리카와 무역거래에서 총탄을 거래수단으로 이용하였는데, 총탄 16개는 소금덩어리 4개 또는 마리아 테레사 탈러(Maria Theresa thaler) 은화 1개와 교환되었다. 현재 오만에서는 총과 총탄이 거리 상점에서 제한없이 판매되고 있다.



말레이 반도의 주석괴와 압섬의 돌원반

말레이 반도에서는 주석괴가 화폐로 사용되었는데, 악어, 수탉 등 동물모양이 대부분이나 모자모양 주석괴도 있다.



▲〈악어모양 주석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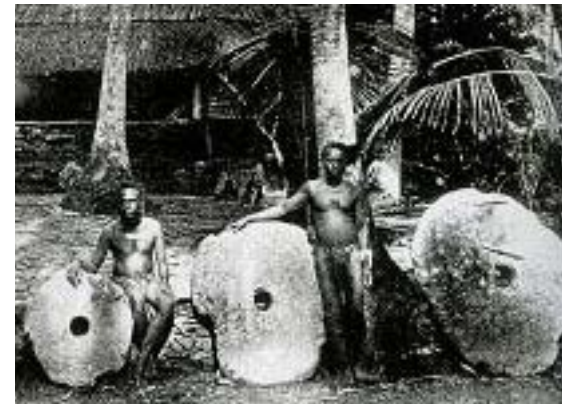


▲〈수탉모양 주석괴〉



▲〈모자모양 주석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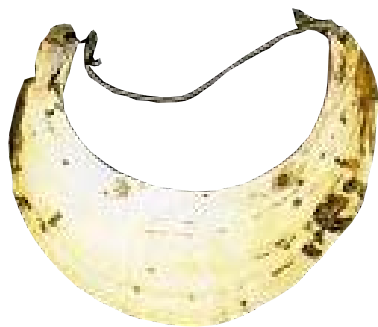
태평양의 압섬(현재 마이크로네시아 연방국)에서는 돌 원반을 화폐로 사용하였는데, 크기가 직경 4미터에 달하는 것도 있다.





파푸아뉴기니의 진주조가비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진주조가비인 키나가 화폐로 사용되었는데, 키나는 1975년 파푸아뉴기니가 독립하여 새 화폐를 만들 때 화폐단위의 명칭이 되었다.



▲〈진주조가비 키나〉



▲〈파푸아뉴기니의 5키나 은행권〉

앙골라의 옷감조각과 솔로몬 군도의 깃털

앙골라에서는 많은 부족들이 라피아라고 불리는 옷감 조각을 화폐로 사용하였다. 솔로몬 군도 산타 크루즈 섬에서는 새의 깃털을 긴 섬유벨트에 붙이고 끝에는 조가비와 구슬을 묶어서 전체를 야자잎으로 감싼 후 결혼식 답례품이나 카누 구입시 화폐로 사용하였다.



◀ <라피아(앙골라)>



▲ <깃털화폐(솔로몬 군도)>



우리나라의 물품화폐

우리나라에서도 생활필수품, 장신구, 무기류 등 다양한 물품화폐가 사용되었는데, 신석기시대에는 토기와 범씨, 삼한시대에는 철제자귀(손도끼), 철정, 철제 화살촉 등이 물품화폐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삼국시대에는 미곡과 직물이 고려시대에는 쇠은과 은병이 사용되었는데, 은병은 은 1근으로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 만든 화폐로 국가가 순도와 중량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각인되어 있었다. 당시 고려 조정은 은병의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은병 1개의 가치를 개성에서는 미곡 15~16석, 지방에서는 18~19석으로 정하였는데, 점차 구리가 많이 들어간 은병이 나타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화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동전이 주조되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민간에서는 포화가 널리 사용되었으며, 1464년(세조 10년)에는 화살모양의 화폐인 전폐가 만들어졌다. 전폐는 비상시에는 화살촉으로 사용되고 평상시에는 화폐로 사용되었는데 세조 초기 여진족이 국경을 자주 침범하였던 데서 이같은 화폐가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토기와 볍씨〉



▲〈철제 자귀(손도끼)〉



◀〈철정(삼한시대)〉



▲〈철제 화살촉(삼한시대)〉



▲〈구리 방울〉



▶〈금동제 귀걸이〉



▲〈쇄은(고려시대)〉



▲〈은병(고려시대)〉



▲〈포화(조선시대)〉



▲〈전폐(조선시대)〉

